

이달의 문화행사

전시소식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명화 감상으로 치유해요”

고양문화재단 ‘프렌치 모던 : 모네에서 마티스까지, 1850-1950’전
오는 8월 30일까지 연장 전시

지난 2월 21일 문을 연 ‘프렌치모던’전은 코로나19의 기세가 치솟아 정부의 방역 지침이 강화됨에 따라 개관 3일 만에 전시를 접는 불운을 겪었다. 이후 수도권 일원의 확진자가 현저하게 줄어든 지난 4월 7일 다시 문을 열고 5월 28일까지 관객을 맞았다. 사전 인터넷 예약을 통해 1시간 당 30명씩 입장을 통제하는 ‘제한 관람 방식’으로 전시를 진행했다. 이 기간 동안 총 6,000여 명이 아람미술관을 찾았다.

‘프렌치모던’전은 인상파와 후기인상파를 대표하는 클로드 모네와 앙리 마티스,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장 프랑수와 밀레, 마르크 샤갈, 폴 세잔 등의 그림과 오귀스트 로댕의 조각 등 세계적인 거장 45명의 작품 총 59점을 선보인다.

아람미술관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2시간 단위로 80명씩 입장을 제한한다. 이번 연장 전시 관람을 원하는 관람객은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www.artgy.or.kr)에서 사전예약을 통해 티켓을 구매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 구매는 1일 선착순 80명까지 가능하다.

전시명 프렌치 모던: 모네에서 마티스까지, 1850-1950

기간(연장 재개관) 8. 30.(일)까지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미술관

작가 및 작품 클로드 모네, 피에르 오귀스트 르누아르, 폴 세잔, 에드가 드가, 앙리 마티스, 장 프랑수와 밀레, 마르크 샤갈 등 45명, 총 59점(회화, 조각)

관람료 성인 1만 원, 청소년 및 어린이 8,000원 *고양시민 50% 할인



장 프랑수아 밀레 작



‘프렌치모던’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전예약제]

* 7월 8일(수)부터 고양문화재단 홈페이지(www.artgy.or.kr) 사전 예약페이지에서 예약 (당일 현장 구매는 1일 선착순 80명까지 가능)

* 입장 시간: 10시~17시 30분(2시간 간격, 1일 4회/1회당 80명까지 입장)

공연소식

2020 아람누리 마티네 콘서트 3 오상진의 스위트클래식

일시 8. 27(목) 오전 11시

장소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

입장료 전석 2만 원

“10년 만에 바이올린으로 꿈 찾았다.” - 오상진 ‘바흐를 꿈꾸며 언제나 칸타레’ 인터뷰 중

아나운서 오상진의 해설과 함께 클래식을 만날 수 있는 마티네 콘서트가 8월에 고양아람누리에 찾아온다. 피아노 안은유, 첼로 채훈선으로 구성된 룩스 트리오가 연주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베토벤의 피아노 삼중주 5번 ‘유령’, 드보르작의 피아노 삼중주 4번 ‘뚝키’를 감상할 수 있다. 예원학교와 서울예고 동문인 연주자들은 2014년 베를린에서 다시 만나 팀을 결성했으며, 2019 영국 위그모어홀 파크하우스 오디션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실내악 스타로 급부상했다. 피아노 트리오로 전하는 낭만음악의 향연, 세 가지 빛깔의 서로 다른 악기가 만들어 내는 조화와 균형의 미학을 쉽고 재미있게 발견할 수 있다.



2020 아람누리 마티네 콘서트 차기 공연 안내

10. 29(목) 오전 11시	피아니스트 원재연(특별 게스트 피아노 이재경, 현악 5중주)
프로그램	바흐 양들은 한가로이 풀을 뜯고
	드뷔시 작은 모음곡
	쇼팽 피아노협주곡 1번
11. 5(목) 오전 11시	아더 첼로 과르텐
프로그램	바흐 무반주 첼로모음곡 6번 중 사라방드
	모차르트 거룩한 성체
	피아졸라 천사의 죽음 외
12. 10(목) 오전 11시	코리아콥오케스트라(지휘 김광현, 바이올린 양정운)
프로그램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서곡, 바이올린협주곡 5번
	베토벤 에그몬트 서곡, 교향곡 5번 ‘운명’ 4악장

※ 상기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축소, 연기, 취소될 수 있습니다.